



1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환승 체계 구축 토론회 2 청년 정책 토론회 3 개인형 이동장치 연구모임

## 천안시의회, 소통 창구 역할 톡톡히

천안시의회는 지난 10월 12일 천안시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환승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인치건 의원을 비롯해 8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도로 진행했다.

시의회는 어제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고 시민의 곁에 가까이 있다는 목표를 내세워 모두 6건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월 개최한 '천안시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충남도민 인권지킴이단 간사,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홍 의원은 "어린이 학대 사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근로자 사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등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이 천안시 인권 행정을 위해 제언한 인권교육 필요성,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개선과 보완, 인권전문가 양성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유영채 의원은 지난 3월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회에서 유 의원은 학교폭력의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미 월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천안시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폭력을 놓아가 아닌 폭력으로 바로 보는 인식변화의 중요성, 학교폭력 양상의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유영진 대표의원은 지난 9월 천안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천안시 청년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도희 부의장을 포함한 토론자들이 일자리, 주거, 문화에 걸쳐 전반적인 청년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천안형 청년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시내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월 8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정병인 의원은 시민과 공익활동가, 관계 공무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내버스 운행 기사의 인권 감수성 교육, 장거리 노선과 굴곡 노선 등 노선 개편,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시스템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의 시민주도형 마을버스 공영화와 화성시의 공영노선 신설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공영화 모델 수립도 검토했다.

황천순 의장은 "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들어 토론회를 통한 의견공유가 활발하다"며 "이를 계기로 조례 제정 등 시민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



3